KÓKKOS 2

FEB 2024 VOL. 262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학위수여식을 20일 앞두고 졸업예정자들이 교정에서 추억의 순간을 남기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묵(컴소), 성성은(간호), 임재희(사복), 이은솔(영보), 나단(성서) 학우 [관련기사 2면]

2024 졸업예정자 203명

'6대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을 갖추었다' 판정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위원 8명 전원 합의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3명에 대한 핵심역량 및 전공 능력 평가 결과 95% 이상의 학우들이 대학이 목표한 평가 기준을 달성했으며 우수한 역량과 전공 능력을 갖춰 졸업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평가는 2020년 이래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23학년도 제6차 교육과정위원회(위원장 최은희 학사부총장)는 1월 30일 각 학과가 제출한 '졸업예정자 대상 핵심역량 및 전공 능력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는데 총 8명의 심의위원(외부 위원 1명 포함) 전원이 만장일치로 학과의 보고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평가된 KBU 핵심역량은 우리 대학이 양성하려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성서적 세계관을 비롯한 6개의 역량으로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K-BIBLE VISION 2032) 에 명시되어 있다.

2024 졸업예정자들은 성서적 세계관에서 22.39점으로 기본점을 받았고, 변혁적 리더십 22.99(우수), 통섭적 사고 23.37(우수), 실천적 전문성 23.53(우수), 희생적 봉사 22.59(우수), 공동체 통합 23.99점 (우수)을 받아 "우수한 역량을 함양하고 졸업함"을 받았다. 성서학과와 영유아보육학과는 6개 역량, 18개 하위요인 전 항목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전공 능력 평가는 학년 초 각 학과가 설정한 학습성과의 달성 목표를 학우들이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성서학과는 경건 능력 등 6개의 전공 능력을 제시, 학우 65%가 '중'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 6개 능력 중 5개 능력은 95%-100%의 학우가 이를 충족, 전달 능력은 86%의 학우가 '중' 이상을 기록하였다.

사회복지학과는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 윤리의 실천적용' 등 7개 항의 전공 능력을 제시하고 졸업예정자 70% 이상이 기본값의 '중' 이상을 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넉넉히 달성하였다.

영유아보육학과는 '교직 소명감, 윤리강령을 적용한 실무능력' 등 6개 전공능력에서 모든 학우가 전 항목에서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컴소는 '분석설계능력' 등 6개의 전공 능력을 제시하였고 3개 항목 100%, 3개 항목 90.2%를 나타냈다. 간호학과는 '기독교적 소명, 간호 리더십' 등 7개 전공 능력을 제시, 학우 전체가 모든 항목에서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번 평가의 판정 기준은 2020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된 기준값을 적용한 것이며 우리 대학의 핵심역량, 전공 능력 평가 도구는 타당성이 입증됐다.

미니설교

성서는 왜 특별한 책인가? (히 4:12–13)

김승호 목사 (성서학과)

성서는 세 가지로 인해 특별한 책이다 .

첫째 , 살아있는 책이다 (12 절). 성서가 살아있는 책인 이유는 저자 (성령) 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 감동을 주고 고난 중에 위로를 준다 .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 우둔한 자에게 명철과 지혜를 준다 . 책망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보여주며 교만한 자를 낮추는 책이다 .

둘째 , 운동력을 갖고 있다 (12 절).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이 성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 무디 (D. L. Moody) 는 "내가 오늘 성경을 붙잡고 읽으면 내일은 성경이 나를 붙잡고 읽는다" 라고 말했다 .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읽으면 내일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읽어준다 .

셋째 ,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다 (13 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마지막 날 인생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 . 말씀이 생각 , 해석 , 판단 ,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세상이 변해도 말씀이 옳다고 하신 건 옳은 것이고 틀렸다고 하는 건 틀린 것이다 .

이준기 , 오동영 학우 , 첫 ' 밀알영웅 ' 의 영예

2023 전기 학위수여식 학사 203 명 , 석사 53 명

이준기 학우
(밀알영웅 / 사복)

오동영 학우
(밀알영웅 / 사복)

이민경 학우
(전체수석 / 영보)

박은주 원우
(대학원총장상)

학 부

사회복지학과의 이준기, 오동영 학우가 우리 대학의 첫 '밀알영웅'으로 선정 되어 오는 20일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밀알인재'인증서를 받고 '밀알영웅'으로 추대 된다. '밀알영웅'은 '밀알인재' 중에서도 발군의 역량과 섬김의 모범을 보인 학우에게 주어지는 영예이다. (인증제도 코코스 2024년 1월호 참조) 밀알인재로 선발된 졸업생은 모두 15명이다. 사회복지학과가 10명, 성서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각 2명, 컴소가 1명이다. 이준기, 오동영 학우는 4개의 필수영역을 모두 충족하였고 선택영역에서 FT 자원봉사 등 모두 9회의 봉사 활동을 참여하였다.

2023 전기 학위수여식(학부 제69회, 대학원 36회)은 2월 20일 오전 10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열린다. 성서 29, 사복 47, 영보 39, 컴소 31, 간호 57명 도합 203명이 학사학위를 받는다. 성서학과 조민영 학우는 7학기 만에 학위를 받는 조기 졸업의 영예와 함께 총장상도 받는다.

졸업예배에서는 김은호 목사(백령도 연지교회 담임, 본교 이사)가 '확실한 동행'(시23편)으로 말씀을 전하며 조윤경(영보학과) 교수가 기도한다.

수상자와 '밀알인재' 인증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총장상 ▲이민경(영보, 전체 수석)
▲조민영(성서) ▲강민주(사복) ▲문진우(컴소)▲류가환(간호)

◈ 밀알인재 ▲이준기(밀알영웅) ▲오동영(밀알영웅, 이상 사복) ▲손정현 ▲이제우
▲최승훈 ▲이동현 ▲이나연 ▲이용호 ▲김영석 ▲윤성중(이상 사복)
▲양승호 ▲나단(이상 성서) ▲맹시연 ▲추유나 (이상 영보)▲박태주(컴소)

대학원

대학원 석사 학위 수여자는 전체 53명이며 일반 신학 8, 간호학 5, 목회학 20, 사회복지학 6, 보육학 석사 14명이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총장상 ▲박은주(일반대학원 간호)

◈ 대학원장상 ▲이민우(사회복지대학원) ▲정윤정(보육대학원) ▲최민국(일반대 신학)
▲구재서(신학대학원) 원우

강민주 , 김지현 (사복 4) 학우

대사협 2024 년 우수 봉사자 표창 받아

사회복지학과 강민주, 김지현(4) 학우가 지난 1월 29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전성용)로 부터 2024년 우수 대학생 봉사자 표창을 받았다.

강민주 학우는 지역 어르신 20명에게 ESG 친환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리더로 세대 간 교류 활성화에, 김지현 학우는 시설청소년에게 심리회복과 진로 낙관성 증진을 돕는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가치관 회복에 기여하였다.

한진호 지역사회임팩트센터장은 올해가 우리 대학 '봉사의 해'라며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주변에 봉사의 생활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복음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산업체 만족도 87.2, 작년 기록 또 갈아치워

2023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재학생 종합만족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우리 대학 출신 직원에 대한 산업체의 높은 평가는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2022년도의 산업체 종합만족도는 86.1점이었는데 2023년 에는 87.2점을 기록하여 우리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복음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핵심역량 교육이 우리 대학 출신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체는 평균 87.6점을 주었다. 특히 실천적 전문성 역량은 89.8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02개 산업체가 참여하였다.

성과관리실(실장 김희수 교수)은 지난 1월 31일 '2023 KBU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본교 재학생들의 종합만족도는 75.3점으로 전년도 75.8점 비해 0.5점 낮아지긴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6개의 조사영역별 만족도는 전공교육이 8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이미지가 6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합만족도가 가장 높은 학과는 성서학과81.4였고 사복은 74.5, 영보 76.1, 컴소 71.7, 간호 72.7 점이었다. 학업 성적군에 따른 조사에서 성적이 낮은 학우들(평점 D이하)이 이외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83.3으로 가장 높았다. 평점 A를 받은 학우들은 그 다음으로 75.4점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재학생 686명이 참여하였다.

학부모들의 종합만족도는 82.3으로 전년도 79.4에 비해 2.9점 상승한 값으로 2020년 이래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명의 학부모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학부모들은 8개 전 조사항목에서 전년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졸업생들의 종합만족도는 2022년 73.6점에서 2023년도 76.5점으로 크게 올랐다. 항목별로는 '본교에 진학한 것을 만족한다'가 7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되었다'가 78점으로 뒤를 이었다. 졸업생 응답자는 411명이었다.

2024 년 대학 인사
성과관리실장 장인순 교수

15일 시행된 2024년도 대학 보직 인사에서 성과관리실 실장에 장인순(간호)교수, 일반 및 신학대학원 주임에 김웅기 교수, 간호대학원 주임에 고미숙 교수(겸 보건실장)가 임명 되었다. 대학원 교학팀장은 신금주 차장을 전보 발령했다.

성과관리실장
장인순 교수

일반 및 신학대학원 주임
김웅기 교수

간호대학원 주임 (겸 보건실장)
고미숙 교수

추소원 (영보 1) 학우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영예

2024 년도 학부 장학대상자 확정

215 명에 총 2 억 4 천만 원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추소원 (영보 1) 학우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대상자가 26일 발표되었다. 25일 진행된 장학사정을 거쳐 성적우수장학 45명과 대내외 지원장학대상자 총 215명이 확정 발표되었으며 전체 장학금은 2억 4천 2백여만원(국가장학금 제외)이 지급된다.

1학기 영예의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은 추소원(영보 1) 학우가 차지하였다. 권샘(성서 3)학우 등 15명이 학과와 학년별 최우수에, 김예성(성서 3) 학우를 포함한 29명은 우수성적장학으로 기쁨을 누렸다.

신입생 대상의 성적장학은 입학생 등록을 모두 마친 후 성적순에 따라 선정 후 발표한다. 교내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최우수성적장학 ▲추소원(영보1)

◈ 최우수성적장학

◇ 성서학과 ▲권샘(3) ▲김시은(2) ▲김주빛(1)

◇ 사회복지학과 ▲우민영(3) ▲이서희(2) ▲양한나(1)

◇ 영유아보육학과 ▲박세연(3) ▲배서연(2) ▲변해원(1)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이제희(3) ▲김병윤(2) ▲이도아(1)

◇ 간호학과 ▲이지민(3) ▲이윤경(2) ▲손진서(1)

◈ 우수성적장학(2등/3등)

◇ 성서학과 ▲김예성(3) ▲최명주(3) ▲한준(3) ▲안치우(2) ▲최재영(2) ▲박기범(1) ▲이하성(1)

◇ 사회복지학과 ▲김현서(3) ▲권단비(3) ▲권하진(2) ▲이향기(2) ▲강성우(1) ▲김은선(1)

◇ 영유아보육학과 ▲김규영(3) ▲피은소(3) ▲이유진(2) ▲윤예진(2)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박범찬(3) ▲박현우(3) ▲김성준(2) ▲서유리(2) ▲명민정(1) ▲임선아(1)

◇ 간호학과 ▲정예준(3) ▲최온유(3) ▲표서이(2) ▲안태우(2) ▲고서현(1) ▲전소현(1)

사회복지사 1 급 시험 71.6% 합격권에

가 채점 결과 응시자 42 명 중 30 명

1월 13일 치러진 2024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우리대학 응시자 42명 중 30명(71.6%)이 합격권 안에 들어간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다. 통상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스스로 채점하여 학과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그 보고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합격 여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3월 20일 발표된다.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원영희)는 1급 시험 합격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방학 종강 다음 날인 12월 15일부터 시험 하루 전인 1월 12일까지 일립관 509호를 시험 대비 공간으로 운영하며(1회 모의고사) 합격을 향한 전의를 다져왔다. 그동안 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의 사복 1급 합격률은 통상 전국 평균에 비해 2~3배 높은 기록을 보이며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 우리 학우들의 2022년 합격률은 81%(전국 평균 36.82%)였고 2023년은 76.7%(전국 평균 36.1%)를 보여줬다.

간호사 국가고시 57 명 전원 합격 확실

100% 합격 전통 다시 이어가

1월 19일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우리대학 간호학과 57명 전원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우들은 시험 치른 후 자체적으로 채점 확인 과정을 거치고 이 결과를 학과(학과장 안현미)에 전해 밝혀졌다. 간호사 국가고시 최종합격자는 2월 16일 발표한다.

간호학과도 학우들의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위한 전용공간을 일립관 405호에 마련하고 방학 기간에 운영해 왔다. 학우들이 자체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2회 모의고사로 강행군을 펼쳐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간호학과는 학과가 개설된 이후 국가고시에 응시한 지난 2014년 1회부터 현재까지(2023년 제외) 응시생 전원 합격 전통을 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 교육의 질과 성과 크게 성장

2023 년 학부교육 실태조사 (K-NSSE) 결과 발표

2023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결과 우리 대학 전체 평균이 60.6점으로 전국 대학 평균(52.8점)보다 7.8점 높았다. 2022년과 비교해도 모든 영역(3개 영역), 모든 세부 요인(17개 세부 요인)에서 크게 성장했다. 2022년도 전체 평균 59.4점에서 1.2점이 오른 성적(60.6)을 보였다. (표 참조)

K-NSSE 조사는 3개 영역(학습 참여, 학습자 심리, 학생성과), 17개 세부 요인으로 분석한다. 우리 대학 영역별 평균은 학습자 심리 68.0점(전국 평균 65.0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생 성과 66.6점(전국 평균 61.1점), 학습 참여 61.7점(전국 평균 52.4점) 순으로 모두 전국 대학 평균보다 높다.

학습참여 영역의 세부요인 중 학업도전 71.8점(전국평균 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환경 65.0점(59.8점), 교수와 경험 64.5점(53.5점),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가 44.5점(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요인에서 70점 이상 받은 항목은 반성적 학습 77.0점(70.0점), 효과적 수업 전략 74.8점(69.6점), 전공 지식·기술 73.5점(70.8점), 협력 학습 73.4점(63.6점), 교우관계 만족도 72.6점(65.8점), 협동 능력 71.9점(66.4점), 다양성 이해 70.7점(67.3점), 유의미 학습 70.5점(60점), 진로 성숙도 70.3점(63.8점) 순이다.

K-NSSE는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재학생의 학습과정 및 대학생활 경험의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강점 및 약점을 진단하는 조사이다.

영역별 평균 (100점 만점 환산)

영역	통합요인	2022년	2023년			
		한국성서대	한국성서대	전국대학	수도권중소형	자율개선 수도권중소형
전체 평균		59.4	**60.6**	**52.8**	**52.0**	**51.9**
학습 참여		58.5	61.7	52.4	51.6	51.5
학습자 심리		66.3	68.0	64.7	64.5	64.3
학생 성과		65.9	66.6	61.1	61.0	61.0
학습참여	학업도전	71.0	71.8	64.5	66.0	65.5
	교우와 학습	62.4	62.6	52.0	52.0	51.6
	교수와 경험	62.1	64.5	52.5	52.0	52.0
	대학환경	63.4	65.0	60.0	58.5	58.5
	고효과프로그램 참여	42.9	44.5	32.3	30.2	30.2

2024 년 신입 교직원 밀알훈련

'성서대학의 설립 이념과 존재 이유'

강우정 총장이 신입교직원에게 대학 이념과 정체성에 관해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

2024년 신입 교직원 밀알훈련이 1월 29~31일까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개최되었다. 5명의 신입 교직원이 참여, 개회 예배와 세미나, 성경 읽기 및 노동과 산행과 묵상의 순서로 이어졌다.

강우정 총장이 '성서대학의 설립 이념과 존재 이유' 주제로 세미나를 이끌었다. 그는 성서대학의 설립 이념은 한반도의 복음화이며 설립자는 이를 위해 '천국운동 50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설립자는 전 국민 복음화를 위해 마을마다 '성경서당'을 세우고 교사는 전도와 농업지식을 전달하는 주체로 설계하였다. '성경서당'의 교사 양성을 위해 14개 도에 '농민 복음학교'을 세우고, 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서울에 '성서학원'을 세운다 는 뜻을 가졌는데 이 '성서학원'이 지금의 한국성서대학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70년간 다져온 우리 대학의 '신앙 정체성', '초교파 원칙',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어떤 험한 길을 마다치 않는 점이 성서 공동체의 자긍심이며 특성에 속한다고 강조하였다. 훈련생을 향해, 현장 사역자로서의 강한 의식, 반듯한 신앙생활(예배,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과 의지를 삶 속에 펼쳐 달라고 말했다.

훈련생들은 게스트하우스와 예배당에 이르는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제거하였고 선배들이 심고 성장한 울창한 수목 주변을 산행하며 밀알 정신의 실천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설립자의 저서 「나의 증언」 내용을 발췌해 토론을 이어갔고 훈련을 위해 6명의 자원봉사자가 헌신했다.

캠퍼스는 공사판 시설개선 한창

식당 , 갈멜관 화장실 등 산뜻하게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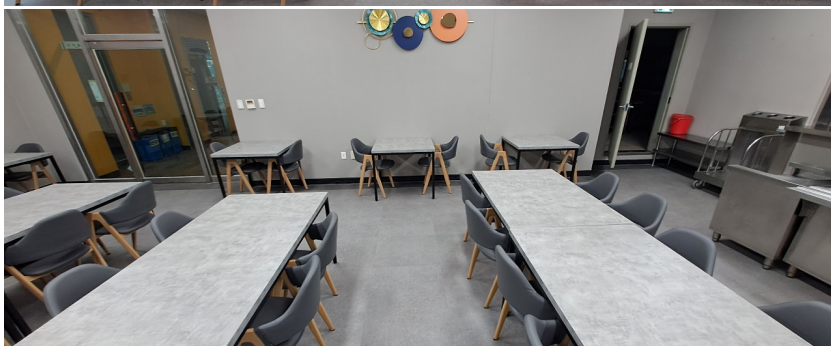
학교는 방학 기간 갈멜관 3개 층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등 새 학년도를 맞는 학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시설개선에 분주하다. 학생식당, 교직원 식당이 바닥, 벽, 조명 등을 바꾸어 산뜻하게 변신하였고 테이블과 의자도 밝고 깔끔한 가구로 교체하였다. 이와 함께 2월 한 달간 일립생활관 2, 3층 화장실과 샤워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기숙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학생 식당, 교직원 식당

학생 식당의 인테리어가 변했다. 바닥과 벽면은 회색빛의 차분한 색상이 감싸며 벽면을 따라 15개(90㎝*90㎝)의 낙서 공간이 이채로운데 낙서하기의 용도. 천장은 LED 등으로 조도가 향상돼 학습과 소통 공간으로도 손색없다. 가구도 회색톤의 식탁(4인용 52 셋트/ 2인용 20 셋트)과 허리를 감싸주는 신형 나무 의자로 모두 교체됐다.

교직원 식당도 동일 컨셉으로 리모델링 되었다. 식탁(11 셋트)과 의자가 주변과 지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벽면에 걸린 금속 조형작품도 시선을 자극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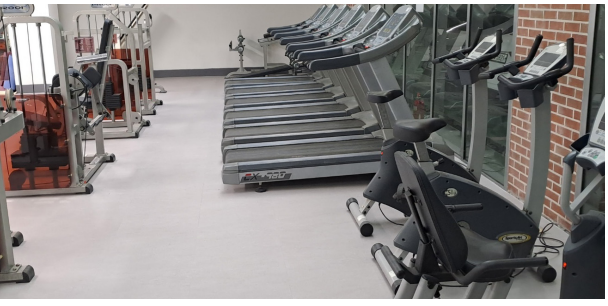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의 내부 시설 개보수와 식탁 테이블 셋트 교체 비용 은 성서대학교회가 후원해 주었으며 전체 공사비는 약 4천 만원에 달한다. 성서대학교회는 우리 대학의 복음전도자 양육을 돕는 동반자로 사명 이상의 책임감을 실천하며 학교 성장에 큰 몫을 묵묵히 감당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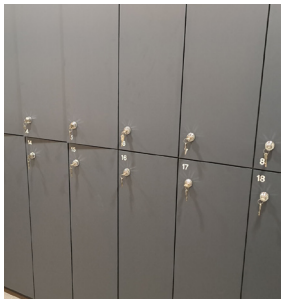


갈멜관 화장실

학우들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갈멜관 화장실이 드디어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다. 초점은 심각한 악취제거. 각층 마다 화장실 변기에서 정화조로 연결되는 배관라인을 대폭 확장, 배출이 원활해졌다. 여기에 강력한 환기 시스템까지 추가로 설치돼 악취 발생을 원천 봉쇄시켰다.

공간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타일과 수전 시설이 머물고 싶은 화장실로 탈바꿈했다. 남녀 화장실 중간에 미니 씽크대를 배치, 학우들의 편의성까지 고려하였다. 전체 공사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약 1억여 원이 투입되었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은 내부와 바닥 전체를 탈바꿈시켰다. 벽면과 바닥이 새롭게 시공되었고 샤워실 내부 전체와 남녀 락커함까지 모두 바꿨다. 천정은 조도가 높은 LED 등으로 교체돼 전체가 한결 밝아졌다. 노원구평생대학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공사비는 4천여만 원이 들었다.

일립생활관 화장실 및 샤워실 개선공사(2월 중 완료)

일립생활관 2, 3층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환경개선공사가 2월 한 달간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립생활관은 일립관 준공(2000년) 이후부터 사용해 온 시설이라 많이 낡았다. 이 공사는 대학혁신사업지원의 일환으로 서림건설(주)이 진행하며 약 5천 4백만 원이 소요된다.

2024 학년도 정시모집 최종 결과 2.51:1

컴소학과 5.67:1 로 가장 높아

편입경쟁률 , 일반 1.46:1, 학사 14.50:1

2024학년도 정시모집은 80명 모집에 201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2.51:1을 보였다. 지난해 정시경쟁률 3.25:1과 비교해 다소 하락(-0.74, 62명 감소)하였다.

학과별 경쟁률(정원내)은 컴소학과가 5.67:1로 가장 높았고 간호학과 4.93:1, 사복 4.00:1, 영보 3.29:1 그리고 성서 2.00:1 순이다. 정원외 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재외국민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의 문은 열려 있다.

편입학 현황은 모집인원 43명에 지원자 115명으로 일반편입 1.46:1을, 학사 편입은 14.50:1을 나타냈다.

한편 1월 25일 실시한 정시지원자 면접에 지원자 201명 중 157명(78.10%)이 참여하였다. 편입지원자는 115명 중 85명이 면접에 참여 74%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국성서선교회 제 50 차 대의원 정기총회

헌장 개정 등 정체성 강화로 결속 다져

현희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한국성서선교회(총회장 현희철 목사, 중앙성서교회 담임) 제50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23일 오전 은평구 갈현동 중앙성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부 예배에서 현희철 목사가 '무릎을 꿇자'(행 21:15)로 말씀을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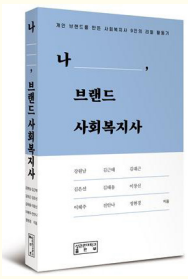
2부 총회 순서에서는 한국성서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최정권 목사와 성서대학교회 담임이 확정된 반세호 목사의 인사가 있었고 목사고시(1/10일)에 합격한 신입 구재서 목사 등 11명을 박수로 맞이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헌장 개정안이었는데 개정 내용은 헌장 중 머리말과 총론, 조직론, 행정론에 담긴 각종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용어 등은 선교회의 정체성을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어휘로 다듬는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헌장의 문제점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현 임원을 모두 연임시키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원단은 회장 현희철(중앙성서교회), 부회장 김정호(삼일성서교회), 총무 김용호(용인성서교회) 목사와 서기 김종구, 회계 이상규 (중앙성서교회) 장로 등이다.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 목사 임직식(2/26), 전반기 목회자 세미나(3/11), 한국성서대학교 주일(4/28), 한국성서대 개교기념(5/13), 밀알청소년 캠프(7/29), 한국성서선교회 주일(9/1), 후반기 목회자세미나(10/14), 연말결산 임원회(12/14) 등을 통과 시켰다.

전안나 동문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 공저 (共著) 출간



'책 글 사람' 대표이며 베스트셀러 작가 겸 특강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안나(사복 2000학번) 동문이 신간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를 공저(共著)로 출간하였다. '개인 브랜드를 만든 사회복지사 9인의 리얼 활동기'가 부제이며 전문 사회복지사의 창의적 도전정신이 개인과 조직 나아가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열정들로 가득하다.

책은 4부로 구성, 9가지 다채로운 인생 컬러가 복지현장의 공간 안에서 부딪치고 도약해 가는 과정을 생생히 접할 수 있다. 1부, 사회복지사와 퍼스널 브랜드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왜 어떻게 만드는지를, 사례의 성공과 함께 독자 스스로 질문하도록 한다.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 / 전안나 외 지음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312p / 17,000원

총장의 편지 | 직원 컬럼

강우정 총장

일등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싸움의 고수」가 쌈밥집 식당 이름이라는 걸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곧 은퇴합니다) 이름이 특이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막연하게 싸움을 잘하는 고수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지나 다녔습니다.

소규모 대학으로 평가라는 싸움터에서 항상 우리보다 큰 대학과 경쟁하다 보니 우리는 싸움꾼이라는 생각을 해 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고수라는 이름이 우리 대학의 별명쯤 된다고 생각하며 뿌듯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싸움꾼입니다. 여호수아 1 장 9 절에 『....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 싸움을 응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번호 코코스의 기사들은 우리 학우들과 교수, 교직원님들이 이를 악물고 싸운 피 튀기는 싸움의 현장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전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 올해 2024 졸업예정자 모두가 '6 대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을 갖추었다' 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 성서대 출신 직원에 대한 직장 상사들의 종합만족도는 87.2 점 (지난해 86.1) 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감사한 일은 하위 성적군 학우들 (평점 D 이하) 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83.3 점으로 A 학점군 (75.4 점), B(75.2), C(74.9) 학점군 학우들 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감사는 결코 성적순이 아니었습니다. ■ 전국 110 개교가 참가하는 학부교육실태조사 (K-NSSE) 에서 우리 대학 전체 평균이 60.6 으로 전국대학 평균 52.8 보다 7.8 점이나 높았습니다. 이 조사의 모든 영역, 모든 하위요인에서 우리는 월등히 앞장서 있습니다. 일등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싸움꾼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Franklin Roosevelt)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맙시다. 가장 피해야 할 일은 결정을 뒤로 미루고 우물쭈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싸움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에 비유하였습니다. 경주자는 속도와 완주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Yogi Berra)

박명우 직원(사무관리팀)

베란다 친구들

어린 시절부터 본가의 베란다에서는 어머니께서 하나 둘 데려온 식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걸 보며 자란 나는 집에도 자연스레 베란다에 초록색 친구가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작은 식물원이 되었다. 다만 초록색이 차지하는 면적과 비례하여 함께 지내는 동반자의 핀잔도 늘어난다는 아쉬움은 있다. 눈은 즐겁고 귀는 괴로운 셈이다.

요즘 초록색 친구들 중에 파인애플과 덩굴식물들, 그리고 무화과를 돌보는 데 힘 쏟는 중이다. 성장하는 걸 보는 즐거움이 크지만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베란다에서 제일 값비싼 녀석이라는 것이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순간 나도 함께 떠나야 할 수 있기에 열심히 돌보는데 추위가 걱정이다. 사실 식물을 돌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초록의 친구를 걸핏하면 갈색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식물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위한답시고 물과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다. 식물을 자주 죽인다면 위 두 가지를 조심할 때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매일 관심 있게 지켜봐 주면 오래 머물게 된다. 물과 영양제도 마찬가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옅게 올라오는 흙냄새를 맡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편안해 지지만 너무 많은 습기와 영양분은 뿌리를 썩게 만든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식물이 본래 자라던 장소가 아닌 베란다나 사무실의 조그만 화분에서 살고 있기에 발생한다. 집에서 키우기 어렵기로 악명높은 몇몇 식물이 그들 고향에서는 잡초 취급 받을 정도로 무섭게 자라난다. 당장 내 눈앞에 두고 애정을 쏟고자 하는 욕심에 식물들은 묵묵히 비좁은 화분을 견뎌낼 뿐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쩌면 식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가꾸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이걸 보니 문득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가꾸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 대단함을 느끼게 된다.

컬 럼

교수 | 학생

강정원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나의 고백

오래전부터 예측이 가능한 미래에 대해 '오래된 미래' 라는 말을 사용한다 . 고령화 사회와 기후 위기 같은 것이 오래된 미래의 대표적인 예이다 . 나 개인으로도 오래되고 확실한 미래가 있다 .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를 다음과 같이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

첫째 , 오늘에 집중한다 . 오늘의 소식 , 현황 , 할 일을 찾아본다 . 내 또래 , 내 이웃 , 내 나라와 동시대 전 지구적인 현상 파악과 시사점을 얻어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 예를 들어 , 최근 우리 사회에 1 인 가구가 많아지고 ,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기사를 들으면 , 바로 집 떠나 자취하는 학생과 졸업생을 떠올려 본다 . 기도하며 카톡을 남긴다 . "괜찮아 ? 잘 지내니 ? 놀러 와 ! 차 한 잔 같이하자 !"

둘째 , 개선이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 . 나랏돈으로 한 일이나 연구는 개선 사항 도출에 더욱 신경을 쓴다 . 사적 영역의 결과는 나 혼자 감내하면 되는데 , 공적 영역의 일은 도덕적 책무와 전문가의 윤리가 따른다 .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묻는다 . "어떻게 개선하면 다음에 더 좋을까 ?"

셋째 ,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려 노력한다 . 20 년 전 갈멜관 3 층 채플에서 들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5 리 (약 2km) 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 리 (4km) 를 동행하고 (마 5:41)' 라는 말씀이다 . 상대방의 요청 이상을 함께 하고 감동 주면 ,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다 . 여기에는 시간과 노고가 따르는데 내 성정이 게으르고 디테일이 부족해 감동에 이르기가 어렵다 . 그럴 때 속엣말로 , "이왕이면 ?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 "

이렇게 챙기며 살아도 기억해야 할 확실하고도 오래된 두 개의 미래가 있다 . 하나는 '사람이 한 번 죽고 ,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 (히 9:27)' 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마 28:20)' 이다 .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미션은 바로 이것이다 .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마 28:19)!"

박범찬(컴소 3)

경 쟁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최근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이다 . 해당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가장 재밌는 점은 상호 간 경쟁을 통한 성장이다 . 이 알고리즘은 생성자 (Generator) 와 판별자 (Discriminator) 가 각각 판별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 데이터를 만들며 , 판별자는 가짜 데이터에 속지 않기 위해 참과 거짓을 분류하는 식으로 경쟁한다 . 만약 생성자가 속이는 데 실패하거나 판별자가 분류에 실패하였을 경우 , 각자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다시 서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유도한다 .

인생에서의 경쟁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다양하며 매우 중요하다 . 경쟁을 통해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동기부여를 시켜 성과를 향상할 수도 있다 . 또한 개인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준다 . 대학 생활에서 대표적인 경쟁의 예시로 성적 경쟁이 있다 . 아무래도 모든 성적은 형평성을 위해서 차례대로 1 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나열된다 . 자신과 성적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학우를 이기기 위해 자극받고 경쟁을 거쳐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하지만 좋은 면만 존재하지 않는다 . 지나친 경쟁은 표준화된 시험과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하고 본질적인 자신의 것을 잃게 된다 . 높은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때때로 부정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 이는 학생들의 도덕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

경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상호작용이다 . 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도 인식하고 균형 있게 잘 관리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수단인 경쟁을 통해 한국성서대학교 모든 학우가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기를 기원 한다 .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임해서 만든 구호 중에 "늦게 만났지만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늦게 만났지만" 이었는데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목양하며 나이 오십에 조금 일찍 왔다면…, 코로나 없이 계속 지냈더라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인간의 결정이 아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목회자와 설교자로 지금 생각해봐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목회자에게는 당회와 교역자회가 가까운 목양 그룹인데 저를 도와주신 장로님들과 부 교역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꼭 감사드리고 싶은 건 식당 팀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식당 운영에 큰마음이 없었는데, 스스로 자원해주신 권사님과 여러 봉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더운 여름에 들어와 2023년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제가 이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양실을 떠나 2층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인 2층에서 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점을 빼놓고는 아직 무슨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조심스럽게 총장 업무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도움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강단을 맡게 됩니다. 1월은 강단 설교를 나누게 되고 2월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강단을 맡을 것입니다. 현재 당회의 계획이면 2월 18일 이·취임식을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선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떠나면서 새삼 선배 목회자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소명 받은 자는 그 자리에 좋다고 더 있어도 안 되며 싫다고 떠나서도 안 된다. 오직 부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주님의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서대학교회 모든 교우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15

평화

박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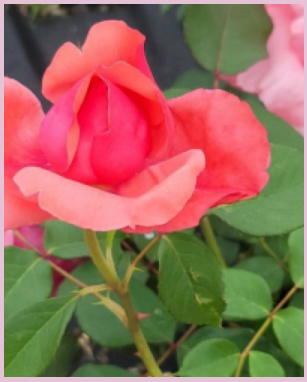
장미 가시가
장미꽃을 찌르지 않는 것

장미꽃이
장미 가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것

뿌리와 줄기와 잎과 가시와 꽃이
한 나무에 함께 사는 것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물들어 가는 것



https://blog.naver.com/tmiyoung/223114774716

한자어 平和는 '악기 소리의 울림이 고르게 퍼져 나간다'는 어원으로부터, 영어 peace는 '협정, 평화 조약, 평온, 전쟁의 부재'라는 어원(pacem, pax)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파생된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다. 평온은 '조용하고 평안함'을,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평안함과 정다움'을 느끼는가?

시인은 '장미 가시가 장미꽃을 찌르지 않는 것, 장미꽃이 장미 가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것, 뿌리와 줄기와 잎과 가시와 꽃이 한 나무에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서로의 존재를 해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2월은, 각자의 소리가 조화롭게 퍼져나가 평온함을 주듯이, 서로의 부드러운 눈길이 정다움을 만들어가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어 가는' 평온하고 화목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0호

카페 콩세르의 한 구석

1878-80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1832-1883)

이 그림을 처음 만났을 때 인물들의 배치나 그림의 전체 구성 그리고 색감이 느껴진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중앙에 연기를 내 뿜고 있는 파이프 담뱃대와 세상 무서운 게 없다는 아줌마의 손에 들린 시원해 보이는 맥주잔이었습니다. 마네는 집 주변에 있는 카페 콩세르에 다니면서 무거운 맥주잔을 쉽게 나르는 여종업원의 기술에 반해 모델료까지 지불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인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파란색 옷의 남자는 여종업원의 남자 친구라고 합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남자는 이 시간이 지나면 주어질 돈에 더 관심 가졌을 것이고 맥주잔을 들고 서 있는 여자는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그 시간을 계산했을 겁니다. 칸막이 너머 무대의 무용수가 몸을 돌리며 회전하려는 동작을 시도하고 있으나 카페 내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림은 잠재해 있는 관람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는데 그날 이 그림이 청소년기 음주와 흡연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심각해 보이는 흡연과 음주의 경험은 없지만 담배 연기를 허공에 내 뿜으며 동그라미 몇 개 만드는가를 놓고 서로 내기하였던 친구들의 얼굴을 되살려 줬습니다. 그들과 처음 맥주 마시던 날 입안에서 느끼던 쓰디쓴 맛의 기억까지 생각났습니다.

모네의 그림에서 배우는 건 삶의 순간입니다. 모네는 스쳐 지나가는 삶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폭에 남겼습니다. 이 그림도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을 담아낸 겁니다. 19 세기에 그린 이 그림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잊고 있던 추억 속의 친구들을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다 살아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눈을 피해 교정 한구석에 모여 피우던 그들의 흡연과 음주가 그 후에도 계속하였을까? 그림이 저를 과거에서 놓아주지 않았던 시간을 즐겼습니다.

5 세반 유아들이 책가방을 챙기며 초등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

대학어린이집

초등학교 진학 준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진학 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시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면서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유아들은 가정에서 책가방과 필통을 마련해 물건에 이름을 적고 챙기며 자기 주도적인 기본 생활을 갖도록 익혀 갔다. 실제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경험하며 학교에 친근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 볼 수 있어 기쁘다”라고 평가했다.

대학어린이집은 졸업하는 만 5세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존중받고, 이해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사는 것을 돕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갈 예정이다. [소망반 고은아 교사]

지역 어르신에게 키오스크 작동법을 안내하고 있다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 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자 기기 사용을 돕는 키오스크 체험 존을 마련하였다. 체험 존은 디지털 장비(키오스크)에 쉽게 접근하도록 관련 기기를 배치, 주민들이 체험해 보며 사용이 쉽도록 교육하는 공간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무인 민원 발급과 은행 ATM기 사용법, 음식 주문하기 및 기차표 예매 등 상황별 콘텐츠를 직접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스마트폰 기기 작동 오류, 간단한 질문 등을 자원봉사들의 맞춤 교육으로 해결하는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키오스크 체험 존은 연중 내내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월계복지관 1층에서 진행하게 된다. [지역사회조직팀 김은미 사회복지사]

유아들이 킨텍스 상상체험관에서 쿠션형 에어바운스 탑승을 앞두고 있다 .

꿈빛어린이집

킨텍스 상상 체험

9일, 만3~5세 유아들이 ‘킨텍스 상상 체험 레이싱 키즈 월드’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짚라인, 다람쥐통, 회전컵 등의 여러 형태 놀이기구에 친구들과 탑승하여 즐겁고 기쁜 순간을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등의 쿠션형 기구에서는 옥외용 미끄럼틀을 대신한 스릴과 속도감 및 쾌감의 묘미로 새로운 경험을 즐겼다.

유아들은 평소 놀이기구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던 수중 보트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수중 보트는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기구여서 더 흥미를 끌었다. 내 힘이 더해질 때 기구가 동일하게 이동 가능하다는 점과 와닿는 속도감 등을 즐기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나리반 호한나 교사]

초등 어린이 제자 캠프가 동도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되었다 .

성서대학교회

공동의회 , 반세호 담임 목사 확정

23년 12월 31일(주일)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최정권 목사 후임으로 반세호 목사를 청빙하기로 의결하였다. 반세호 목사는 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센터장을 맡아 지역 내 청년사역을 크게 부흥시킨 역량을 보여 왔다. 담임목사 이·취임식은 오는 2월 18일에 있다.

초등 어린이 제자 캠프가 18~20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동도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됐다. 13명의 아이들과 3명의 교역자, 학부모가 함께 하였는데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캠프 기간 영접 기도를 하며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서대학교회 교회 학교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오종철 목사]

유아들이 복고 의상과 소품을 이용해 수료 사진을 촬영 중이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수료 사진 촬영

4일, '복고'를 주제로 23년 수료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사진 컨셉인 '복고'에 맞춰 유희실 내부를 옛날식 풍경과 소품 등으로 단장하였고, 아이들은 복고 느낌의 옷을 입으며 색다르게 달라진 자신에게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유아들은 특히 옛 풍경으로 꾸며진 유희실 내부 전체에 궁금증을 갖고 탐색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다양한 소품 앞에 서서 멋진 포즈로 자신만의 개성을 선보이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마쳤다. 일부는 옛날 소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지거나 놀며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려 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푸른반 교사 이진아]

실내에 마련된 다양한 겨울 놀이용 기구와 각종 소품들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겨울 놀이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할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취지는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적합한 놀이환경에서 신체 발달을 이뤄가기 위한 목적이다.

'겨울 놀이를 즐겨요' 프로그램에서 눈싸움·눈공굴리기, 컬링, 눈치우기 등이 준비됐다. 또한 먹거리 장터(붕어빵, 호떡 굽기), 썰매 타기, 에어바운스, 이글루 만들기, 포토존, 드레스룸 등을 즐길 수 있다.

부모 및 보육 교직원들은 영유아가 실내에서 계절과 잘 맞는 놀이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각 발달 수준에 따라 놀이가 가능하다며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대상은 10시~11:30까지, 영유아 가정은 15:00~16:30로 2월까지 운영된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유아들이 목장에서 치즈를 이용한 피자만들기를 즐기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졸업여행

19일, 만 5세 온누리반이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파주 모산목장, 아이들은 버스에 타고 출발하면서부터 졸업여행에 대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목장에서 만든 치즈를 이용해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시식하며 기분 좋게 시작하였다. 젖소들과 만남이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낯설고 무섭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으로 털을 만지거나 친근한 언어로 사귀고 싶다는 교감을 통해 생명 사랑의 소중함을 다졌다. 건초 먹이 주기 체험과 우유로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기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며 즐겼다.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며 겨울 놀이를 추억에 새겨 넣었다. [초록풀잎반 강혜진 교사]

유아들이 뽀로로 테마파크 방문의 순간을 멋지게 남겼다.

늘사랑어린이집

뽀로로 테마파크

4일, 0세~5세까지 뽀로로 테마파크에서 다채로운 놀이를 즐겼다. 0세에게 현장학습은 처음이라 적응 여부에 걱정이 많았는데 기우였다.

뽀로로 테마파크로 향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길까지 형님들처럼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다. 포토타임과 함께 트램펄린과 미끄럼틀, 타요 자동차, 뽀로로 기차에 탑승하는 등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볼풀장에서 놀이하기와 뽀로로 캐릭터로 이뤄진 다양한 체험존을 비롯해 신명 가득한 공연까지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경험하였다. 0세와 함께 한 첫 현장학습에서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끊임없이 나오는 웃음소리로 교사들이 더 행복한 시간이었다.

[늘사랑반 윤영숙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873만원(운영)
강우정, 강진(총장)	6,510,540(운영)
김형수	350만원(장학)
총학생회	161만원(장학)
교수부(교수상조회)	100만원(장학)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애솔 강옥경 강은해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무엘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나유나 남범수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수진 박순임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성은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채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지준 윤현중 윤혜자 이광삼 이권호 이도훈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진경 이진리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해성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윤미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1만5천원 이예람

1만8천원 이은광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류충열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심규리 안선례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한별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임주영 임준택 장은경 장재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조믿음 조소정 조은별 최선옥 최성자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추하은 탁명화 하지혜 한 솔 허춘선 홍진옥 황인숙 /등대교회

2만5천원 김미숙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세련 김윤정 김재임 김지애 민승철 민찬양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우종엽 유아랑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전지혜 정슬기 조신애 조은경 조하은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좋은교회

4만원 노민지 배정환 신은진 홍혜주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동완 김준오 김 진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지은 최경환 최송희/가학교회 /벧엘성서동우회 /생명의빛교회 /화도드림교회

6만원 정동주

8만원 박주은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남영란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유나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15만원 박빛나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권명희 기병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은주 김혜미 선유정 양은성 양주향 이동기 이성란 이연신 이은수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곽은혜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애선 김창환 김형태 박명규 박은영 송동식 송세희 신한우 연성희 오명이 이미영 이선경 이승찬 이은영 이진아 이혜봉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정해숙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천광호 최경애 최장현 함은애 황미숙

기부자 명단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송의택 안태유 최정규
5만원 권오길 김명자 김성안 박선희 안종헌 이재현
10만원 김승례 박은정
30만원 박지홍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성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연지 박주양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이정은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허윤민 요시다고조 하늘사랑
1만3천원 박성범
1만5천원 심평강 유다운 진달래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박은주 박태용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2만5천원 김봉재 김 희 박인혁 이소연 하희수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추연진
3만5천원 반우형 임수아
4만3천원 정은상
4만5천원 문지예 민경은 배민정 전영호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성호 김원빈 양단아 장정순
5만5천원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윤혜진 정지용
6만5천원 김덕원
7만5천원 김병수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상일
8만5천원 권순범
9만5천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영태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2만5천원 김덕현 신금주 장성희 최사랑 최육열
13만5천원 최지은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15만5천원 김중완 한진호
17만5천원 권경만
20만원 김승옥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조윤경
22만5천원 정휘진
25만원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37만5천원 이강동
50만원 반종원
651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재택 최미정 최영운 호한나
2만원 진양희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위소진 유정현 장윤정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차도영
6만원 장나혜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35만원 오동준
40만원 차 건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9천원 김은미 오경미 이 천 정갑순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고미숙 권정화 김다혜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김상은 김성은A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웅기 김유미 김일선B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희현 박상희 박영신 박은선 박이숙 박주형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양태환 오종철 윤재필 이봉호 이소정 이승림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장진희 장홍림 정선희 조영희 최인숙 하은희 한성실
2만7천원 장혜린
3만6천원 강규성 김인자 박 선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4만5천원 김순옥 노봉환 이은실
5만4천원 김문응 김현석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6만3천원 박영숙
7만2천원 박선하 정도유 정예진
9만원 강성훈 길용희 김원태 박세건 박온오 이정임 최강희 최대만 최순남 최지웅 한진호
1873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 /동두천성서섬김교회 /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어린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박우람
3만원 임윤창/어린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한상욱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홍성일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이관헌 이일신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평화의교회/행복한교회
3만원 김종환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서미혜 정동환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30만원 박순정
350만원 김형수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주님손교회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짱/동신자원 /무진인터내셔날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 /상일교회/예일에드컬 /행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병수)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40만원 두암산업(주)
100만원 교수부
161만원 총학생회

소계(20231221~20240120) 62,313,680
누계(20230301~20240120) 936,694,333

한국성서대학교 1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500,000원)

가성교회(동문) 5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25구좌, 연간 납입 예상액 3,000,000원)

5구좌 권오길(동문) / 3구좌 박보영(동문), 최정규(동문)) / 2구좌 곽은혜, 김미옥, 김선미, 이선경, 이승찬, 정인숙, 지은영(전원 동문)

일시납 누계 (2022. 3.1~1.22) 222,724,700원 / 약정자 누계 (2022. 3.1~1.22) 218구좌 / 연간납입예정액 26,160,000원